

謹賀新年

# 2020년 경자년 (庚子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생태·문화 두 축, 평화 경제 원년”

### 허석 순천시장



시간 돌봄과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농어업인 공익수당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 순천시 허석 시장은 경자년 2020년을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평화와 경제 번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생태에 문화의 웃을 입히고 예술의 선율을 더해 세계 관광의 별로 발돋움해 나가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으로 3국 과거, 현재, 미래가 담긴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문화와 평화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로 삼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이어 “내년은 교육과 생태를 경제활력으로 이어가는 3E 프로젝트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4차 산업기술과 융합해 미래형 생태경제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일대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NO 플라스틱 도시, 순천 시민운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일상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부를 위한 24

남 제1의 도시를 넘어 광주, 전주와 함께 호남 3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과거 순천도호부의 영광과 자부심을 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도시, 일상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끈을 더 단단히 동여매고 28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시 승격 70주년이자 순천방문의 해였던 2019년은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 등 해묵은 과제들을 풀 어냈고, 28만 시민의 힘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등 대내외에서 도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던 뜻깊은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 “생태경제도시 향한 순천시의 새로운 도전의 조력자 될 것”

###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전남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은 2020년도 신년사를 통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생태경제 도시’를 향한 순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교육여건, 생태환경, 풍부한 역사·문화 등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특화·발전시켜 ‘생태경제 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 순천시의회가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날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더 나은 순천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순천시의회를 향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정진 의장은 “지난 한 해 순천시의회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지향하며, 23명의 의원이 함께 굼직한 현안사항부터 사소한 민원사항까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며 숨 가쁘게 보냈다”고 한 해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올 해도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 기업 돕는 다양한 사업 전개”

###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순천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제조업의 기반이 여수나 광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언급했다.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순천지역 산업구조가 3차 산업 위주로 편중돼 있어서 2차 산업인 제조업체를 늘리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 경제 여건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순천상공회의소 차원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해 들어 미·중, 대·일 관계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있고, 지역의 주력 업종인 철강과 조선, 플랜트 등 대중소기업 모두 힘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기업체들에 보탬이 될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며, 예를 들어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40억 원을 비롯해서 지난 4년 동안 1백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런 지원금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무료 통근버스 운행과 기숙사 지원,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전체 산업에서 15%에 그치고 있는 제조업 비중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지속 가능한 순천이 되기 위해 순천산단과 해동산단, 율촌산단과 기업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역량을 모아야만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했던 지역의 중견기업 일부가 법정관리 등으로 현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이 어렵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욱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죽암건설과 죽암기계 대표이사, 죽암농장 대표를 맡고 있으며 법무부 법사량위원회 전남동부지역회장, 사단법인 숲속의전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석탑산업훈장,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등을 수상했다.

# 허석 순천시장 ‘2020년 시민과의 대화’ 시작

지난 14일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서부터 시작돼

시정 운영방향 설명하고 주민 현장 목소리 경청

2020년 한 해 동안의 시정 방향을 시민들에게 직접 만나 설명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2020년 시민과의 대화’가 1월 14일(화) 지난해 5월 신청사로 이사회 조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했다.

첫 ‘시민과의 대화’에는 200여명의 지역 주민들과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참석해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허석 시장은 올해 순천시는 ‘2020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슬로건으로 세우고, 교육과 생태를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5대 비전들

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화의 현장에서는 참석하신 시민들은 순천역과 철도마을을 연결하는 육교 개량과, 도로 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 철도관사마을과 관련된 사항을 건의했다.

허석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순천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이후 전입해 조곡동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책방주인, 철학원 원장등 다양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시민 10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까지 간담회는 주로 지역의 사회단체장 또는 기관장들이 참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에 살고 있는 다



양한 이력의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로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시민들은 “일반적인 설명회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2020년 시민과의 대화는 24개 읍면동을 순회하고 2월 13일 도사동을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문석 기자

## 빈집 리모델링해 반값으로 임대 추진

신혼부부·저소득층·대학생 대상 3년간 임대

순천시는 도심에 공가로 방치된 주택을 찾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 후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하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해 줌으로써 우선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노후주택 소유주는 리모델링 후 3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

대하는 조건등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는 주택 한 채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공사비의 30%는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소유주는 건물이 소재한 동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건축과에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건축과(061-749-6379)로 문의하면 된다.

신서연 기자

## 순천대, 전교조 ‘제19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개최

국립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지난 1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에서 주최한 ‘제19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를 학내 일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국참교육실천대회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이래 지역별, 교과별, 주제별 교사 모임에서 진행해왔던 참교육 실천 나눔 행사를 계승해 전교조 합법화 이후인 2002년부터 전국 규모 행사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국의 참교육 실천 사례를 한 곳에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학교 현장의 혁신과 교사 전문성 고양을 이끄는 주요 흐름을 해마다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회이며, 참교육 실천을 결의하는 마당이기도 하다.

“삶을 위한 교육, 더불어 행복한 교육 시대를 만들자!”라는 총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5일(수) 13:30에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1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대토론회, 2부 분과운영 마당 운영에 이어 3부 순천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5일 개막식에서는 고영진 순천대 총장, 허석 순천시장의 환영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고,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1부 행사는 ‘미래교

육을 준비하는 교육혁신대토론회’라는 소주제에 따라 13개 교육단체(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북교육청, 교육운동연대(준), 교육희망네트워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교육정상화를위한교육혁신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공동주최하고, 호남권 3개 교육청(전남, 광주, 전북)과 전교조가 공동주관으로 진행한다. 또한, 순천시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후원했다.

16일 2부 분과마당에서는 유·초·중등 교과별 마당, 문예 마당, 주제 마당, 연대 마당에 걸쳐 28개의 분과가 운영될 예정이고, 17일 3부 순천 투어는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순천이 주는 따뜻한 정취를 느끼고, 순천의 문화 예술을 경험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진행되는 토론과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함께해 학생 행복 교육,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추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문석 기자

## “내달 21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하세요”

순천시는 올해 5월부터 지급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오는 2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생태적 가치 증진의 사업 일환으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1년 전부터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경영주이다.

순천시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5월에는 ‘19년 하반기 분 30만원’과 ‘20년 상반기 분 30만원’ 등 60만원을 지급하고, 10월에는 ‘20년 하반기 분 30만원’을 각각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지원센터에 안내를 받아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마을 이장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검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 순천시, 3월부터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지난 14일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들 대상으로 설명회

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순천시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별 전자출결시스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14일(화) 순천시 보건복지회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됨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월 말까지 전자출결시스템 설치가 필수적이다.

순천시에서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 설치비와 아동 1인당 태그 비용을



오는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4일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출결시스템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부모는 아이의 등·하원 시각을 안내하는 안심문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은 전자 출석부의 자동생성 및 이용 확정을 통해 출석 서류 관리 및 행정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발 빠르게 도입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21개 어린이집에서 8,584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정수현 기자